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음 7월 18일) 제284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고창-부안 숙원 노을대교 건설 '순풍'

도내 8개 국도·국지도 노선, 기재부 재정평가 일괄예타 통과 총 1조205억원 확보... 어려운 상황 속 최고의 성과 거둬 전북도 "사업 조기 착수 위해 국가예산 확보 박차 가할 것"

전북도가 24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노을대교 등 8개 사업 1조205억원이 일괄예타를 통과해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대상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의 예타 통과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개최됐다.

(연면적 18만㎡)

심사대상은 전북도 12개 사업을 포함해 전국 117개 사업이며, 기재부는 KDI와 함께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일괄예타 통과된 전북도 사업을 살펴보면, 반영 규모나 내용면에서 역대 최대규모이다.

특히, 타 시·도와 비교해 인구수, 교통량 차등등록대수 등 경제성 분석에 있어 객관적 통계지표가 매우 불리한 상황을 감안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규모면에서는 제3차 3건, 4차 2건이 통과돼 각각 26배, 4.0배 규모이다. 사업비는 3차 5,902억원, 4차 2,877억원이나 5차 계획에서는 1조 205억원이 통과돼 각각 1.7배, 3.5배 규모이다.

또한, 통과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전북도민의 약 20년 숙원사업으로 고

창 해리와 부안 변산을 잇는 노을대교를 비롯해 관광활성화와 이동거리 단축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성 확보,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다수의 사업이 통과됐다.

순창군과 강천산 군립공원 경유하는 국지도 65호 4차로 확장 동절기 강설로 인해 교통이 두절되고, 도로구조 불량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완주 소양~동상, 완주 동상~진안 주천, 남원 주천 호경~고기 정읍 부전~칠보 등 2차로 개량 세계대관도원 진입로 개선을 위한 무주 설천~무풍 2차로 개량 전북권 최대 산업물류축(완주·익산 신단→군산항·새만금 국제공항·새만금신항)을 연결하는 익산 오산 신지~영만간 4차로 신설 등이다.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둔 비결은 경제성 및 교통수요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한 전북도 지휘부의 과감한 결단과 지역 국회의원, 시·군의 공조가 힘을 발휘한 결과로 파악된다.

이번에 통과된 사업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사업은 단연 고창과 부안사이의 곰소만에 7.5km의 해상교량을 건설하는 국도 77호 노을대교 건설사업이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노을대교는 지난해 10월 일괄예타 조사 1차 점검 시 경제성(B/C)이 0.29로 파악돼 또다

시 5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에 대해 도는 경제성(B/C) 개선을 위해 육지부 제척이라는 전략적인 선택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 서남해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등 미래 교통수요를 반영을 요구한 결과, 지난 5월 제2차 점검시에는 경제성(B/C)이 0.65로 상당 조정됐다.

또한, 그 과정에서 윤준병, 김윤덕 의원택 의원 등 국회의원 및 관계 시·군과 공조해 중앙부처에 지속건의하는 등 정차민 및 전북도 지휘부의 과감한 결단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0년전 전북도 기획실장으로 노을대교 건설을 처음으로 기획하고, 건설계획을 확정지은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노을대교 건설 확정에 대해 남다른 소회를 가지고 있다"며 "전북에서 첫 번째 가는 해안관광과 휴양지이나, 우수한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기에는 항상 평가 부족함이 있었다며 노을대교 건설이 그 부족함을 채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이어, "제5차 국도·국지도 일괄예타 통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국토부, 기재부 관계공무원과 지역 국회의원들께 머리숙여 감사함을 표한다"면서 "예타가 통과된 만큼 해당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500억원 미만 비예산 8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해 9월중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위임국도 37호 폭원부족 정비사업이 디젤공사를 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곳 폭원 정비사업은 (유)D종합건설이 2021년 4월에 착공, 올 12월에 완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9,000만원이 투입된다.

무주 가옥리 국도 폭원정비 부실공사 우려

옹벽블록 뒷채움 작업 등 일부 공정 빠져 주민들 "폭우 시 붕괴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위임국도 37호 폭원부족 정비사업이 디젤공사를 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곳 폭원 정비사업은 (유)D종합건설이 2021년 4월에 착공, 올 12월에 완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9,000만원이 투입된다.

이 국도는 도로선형이 굴곡지고 폭원이 협소해 주행차량과 경운기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왔다. 이에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이 구간에 L형측구 75m, 옹벽블록 574m, 집수정 2개소 등을 설치하는

도로 폭원확장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문제는 시공사인 D건설이 공사과정에서 옹벽블록을 쌓은 후 잡석으로 높이에 따라 1m또는 1.5m를 뒷채움한 후 다짐을 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뒷채움 다짐 공정을 생략하면 집중 호우 시 옹벽이 무너져 도로가 유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전문가 이모(62)씨는 "가옥리 도로는 선형이 굴곡지고 폭원이 너무 협소해 주민들은 물론 운전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곳"이라며 "도로 폭원을 확장하는

데 옹벽에 잡석을 채우고 제대로 다짐을 하지 않고 시공할 경우 옹벽이 무너질 위험이 많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들은 "여름철 계절리성 폭우 등이 내릴 경우 빗물에 의해 순식간에 부실한 옹벽이 무너져 내릴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옹벽에 규정대로 잡석을 채운 후 제대로 다짐 공사를 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도로 폭원을 하는데 옹벽을 몇단 쌓는냐에 따라 뒷채움을 한 후 다짐을 한다"며 "옹벽 높이에 따라 1m~1.5m에 잡석을 채우고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도,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예타 선정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탄소배출 없는 청정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전북도의 수소산업 육성 전략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는 산업부, 전북 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기획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일궈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도는 기후변화 대응과 2050 탄소제로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019년 공모를 통해 그린수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 수소산업 클러스터 예타 조사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성공적인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2차례에 걸쳐 27개 기관·기업과 상호협력을 체결하고, 원활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해 경제성 분석 등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 기획보고서 및 예비타당성 요구서 등을 작성했다.

도는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으로

전북이 그린수소 산업 중심지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에 7GW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100MW급 수소 전해 설비 집적공간을 조성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관련 수전에 기업 집적화단지 및 기업지원용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기업 유치 40개사(그린수소 생산기업 20, 센터입주 20), 고용유발 3만2,000명, 생산유발 5조7,050억원, 취업유발 3만4,464명 등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